

제주 여성 최초 400회 헌혈자 탄생 송현자씨 22년간 생명 나눔 실천

제주지역에서 여성 최초로 400회 헌혈자가 탄생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 2일 헌혈의집 한라센터에서 제주시 일도2동에 거주하는 송현자(54) 씨에게 400회 헌혈을 기념하는 기념패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송현자 씨는 22년 전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우연히 '헌혈의 집' 간판이 눈에 들어와 헌혈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송 씨는 이날 헌혈을 통해 제주 최초로 400회 헌혈을 달성한 여성 헌혈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주도혈액원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헌혈 부적격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회 헌혈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기록이 더욱 의미가 있다. 송현자 씨는 "헌혈은 건강할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누군가가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헌혈을 건강하게 많이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halla.com

진로교육지원센터·병무청 업무협약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2022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꿈광' (센터장 변영실)은 지난 5일 제주지방병무청 (청장 문경종)과 군인 관련 직업군 체험사업 및 진로 프로그램 개발 등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주시 청소년의 진로 ▷제주시 청소년 군대 관련 직업군 인프라 연계 ▷청소년 대상 군인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협력 ▷병무청 및 진로센터 멘토 부스 운영 지원 등이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제주지역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를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가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 중문지점 부녀회 농약 빈병 수거사업

제주감귤농협 중문지점 (지점장 오봉준) 부녀회 (회장 박영옥)는 지난 2일 부녀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통한 청정제주의 이미지 제고와 감귤생산 능가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농촌 환경정화 폐영농자재 (농약 빈병·봉지) 수거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본격적인 감귤 출하시기를 앞둔 인근 주민들과 함께하며 부녀회 인지도 향상은 물론 부녀회 회원간 친목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박영옥 부녀회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폐영농자재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은행 송편 나누기 행사 지원

제주은행 (은행장 박우혁)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5일 아라중합사회복지관 (관장 조성태)을 방문해 인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송편 나누기' 행사를 지원했다.

제주은행은 매년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사랑의 송편 나누기를 진행하고 있다.



해병대 9여단 장병들 태풍 피해 복구



해병대 제9여단은 6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 일대에서 환경정화 대민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해병대 제9여단은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이날 오전 장병 4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방치된 암석과 나뭇가지 등을 정리했다.

제주문화원 느영나영토일예술학교 발표회



제주문화원 (원장 김순이)은 지난 4일 호은아트홀에서 '2022 느영나영토일예술학교'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과정을 마친 오카리나·하모니카·우쿨렐레·색소폰·장고·한국무용 수강생 70여명이 무대를 꾸몄다.

적십자여성봉사자문위 복지시설 물품 전달



제주적십자여성봉사자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 강현숙)는 최근 제주시단기청소년센터, 제주작은예수교회, 아기사랑엄마의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진흥기업 재일제주인 돕기 성금



진흥기업 (주) (회장 이철수)는 지난 5일 진흥기업 사무실에서 재일제주인 1세대 돕기 특별모금 성금 3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강지연)에 기탁했다.

치매예방 주간학습지 **노독독!** <247>

한라일보·제주도 광역치매센터 공동 기획

▶문제 1. 제시된 글자들을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시켜 보세요.

- 1) 산 록 백 한 담 라
- 2) 귀 시 서 포
- 3) 대 망 설 할 문

▶문제 2. 아래 달력을 참고해 문제를 풀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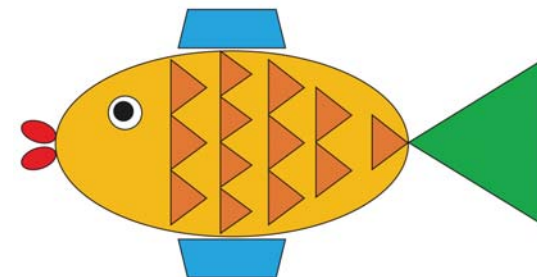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성수기	2022. 7. 8. ~ 2022. 7. 27					
극성수기	2022. 7. 28. ~ 2022. 8. 13					
시기	요금					
성수기(평일, 주말)	45,000원					
극성수기(평일)	60,000원					
극성수기(주말)	75,000원					

1) 영희가 여름휴가로 7월 26일 출발하여 7월 31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숙박을 예약했다면 영희가 지불해야 할 숙박비는 얼마일까요?

2) 아래의 표를 보고 숙박비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보세요.

숙박일	철수	영희	범수
7월 1일 ~ 7월 6일	7월 26일 ~ 7월 31일	7월 28일 ~ 8월 1일	

▶문제 3. 아래의 물고기 모양을 만드는데 쓰인 도형의 개수를 적어보세요.



- 타원 > 개 동그라미 > 개
- 세모 > 개 사다리꼴 > 개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뇌독독 문제풀이 영상이 YouTube에 업로드됩니다. YouTube에서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를 검색하세요.

학습지 정답은 13면 한라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 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이제는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 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각학사
청각학사
청각학사